

- 주요 뉴스: 미국 고용지표와 성장률, 예상보다 양호. 통화긴축 지속 및 경기침체 우려 심화
 - 미국 상원, 1.7조달러 규모의 내년도 지출법안을 가결. 정부 섣다운 회피 가능성
 - ECB 부총재,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 당분간 0.5%p 금리인상 지속을 예상
 - 중국 정부, 내년 1월부터 해외 여행객에 대한 격리 중단할 전망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향후 경기불안 증폭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1.5%], 달러화 강세[+0.3%], 금리 상승[+2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고금리 지속 우려 및 기술주 부진 등이 원인
 유로 Stoxx600지수는 경기 불확실성 및 자동차 관련주 약세 등으로 1.0%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이 영향
 유로화가치는 0.1% 하락, 엔화는 0.1% 절상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통화긴축 장기화 가능성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5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290.7원, +14.5원) 1.2% 상승, 한국 CDS 보합

		12/22일	12/21일	전일대비			12/22일	12/21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822.4	3,878.4	-1.45%	국채 금리 10y	미국	3.68%	3.66%	2bp
	유럽	427.26	431.44	-0.97%		독일	2.36%	2.31%	5bp
	중국	3,054.4	3,068.4	-0.46%		영국	3.59%	3.57%	2bp
	일본	26,508	26,388	0.46%	CDS 5y	한국	55bp	55bp	0bp
	한국	2,356.7	2,329.0	1.19%		중국	76bp	77bp	-1bp
	달러지수	104.43	104.16	0.25%	위험 지표	EMBI+	-	378	-
환율	유로화	1.0593	1.0605	-0.11%		VIX	21.93	20.07	9.27%
	엔화	132.36	132.46	0.08%		WTI유	77.49	78.29	-1.02%
	위안화	6.9854	6.9818	-0.05%	원자재	구리	375.1	380.6	-1.46%
	원화	1,276.2	1,285.7	0.74%		금	1,792.1	1,814.4	-1.23%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고용지표와 성장률, 예상보다 양호. 통화긴축 지속 및 경기침체 우려 심화

- 12월 3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가 21.6만건을 기록해 2주차(21.4만건) 대비로는 소폭 증가했으나 예상치(22.4만)를 하회. 특히 통상적으로 금리상승에 큰 영향을 받는 기술 및 주택부문 기업들의 해고가 많지 않은 편
- 이번 결과는 기업들이 여전히 노동시장의 공급 부족 등을 고려하여 해고에 소극적임을 시사. 다수의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에서 일부 냉각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팽팽한(tight) 수급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 이와 같은 상황은 계속해서 상당한 수준의 임금상승 여건을 조성
- 한편 3/4분기 성장률(확정치) 역시 3.2%로 집계되어 수정치(2.9%) 대비 0.3%p 상향. 소비자지출, 비주거용 고정투자, 수출, 정부지출 부문이 예상보다 개선되어 이번 결과에 일조. 다만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주거용 투자는 큰 폭 감소
- 경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연준은 물가상승 압력을 충분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까지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금리인상을 지속할 소지(FWDBONDS의 Christopher Rupkey). 아울러 이에 따른 여파로 향후 경기 불확실성 우려도 증폭
- 다만 일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고용지표 및 이에 따른 임금상승 가능성은 가계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경기가 심각한 침체 국면에 진입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 내년 봄부터 경미한 수준의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PNC Financial의 Gus Faucher)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상원, 1.7조달러 규모의 내년도 지출법안을 가결. 정부 섯다운 회피 가능성

-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470억달러) 등을 포함한 '23 회계연도 지출법안을 찬성 68 반대 29로 통과시켰으며, 이번 법안은 12/24일 정부 섯다운(일시 업무정지) 시한을 앞두고 23일 하원에 송부될 전망. 이후 백악관 승인이 필요
- 시장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 동안 이견을 많이 좁혔기에 하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 이 경우 정부 섯다운을 피할 것으로 기대

■ ECB 부총재,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 당분간 0.5%p 금리인상 지속을 예상

- 이번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금리인상 이외의 다른 선택은 없다고 발언. 또한 최근 금융시장의 인플레이션 위험 과소평가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지적
- 스왑시장에서는 ECB가 2.0% 수준인 수신금리를 내년 7월에 3.5%까지 높일 것으로 추정. ECB 라가르드 총재 역시 최근 통화정책회의에서 긴축 의지를 피력

■ 독일 재무부, 4/4분기 경제활동 위축을 전망. 고용은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기대

- 연말까지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부진할 수 있다고 경고. 다만 고용시장은 안정적 모습을 나타낼 수 있으며, 정부 역시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경기부양 및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 내년 인플레이션은 둔화될 것으로 예측

■ 중국 정부, 내년 1월부터 해외 여행객에 대한 격리 중단할 전망

- 블룸버그에 따르면, 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 중단의 일환으로 해외 여행객 의무 격리 대신 3일 간의 의학적 관찰로 대체할 계획.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점진적으로 마련될 전망

■ 중국 국무원과 인민은행, 경제성장과 부동산 회복을 위해 노력할 방침

- 성명서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면 내년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 최근 경제가 회복되면서 안정화되고 있으나 아직 기반이 단단하지는 않다고 설명

■ 일본 정부, 내년도 성장률 전망을 상향.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락을 예상

- '23 회계연도의 성장률 전망을 7월에 비해 높여서 제시(1.1%→1.5%)하고 소비자 지출 역시 임금 상승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 한편 소비자물가는 내년 1.7%를 기록하여 금년(추정치 3.0%)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관측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2/23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1월 근원 PCE 물가, 내구재 수주, 개인소득
- 미국 12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확정치) 및 5년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확정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23년 주요국 중앙은행, 경기침체 속 금리인상 가능성 상존 - Financial Times

(Who would be a central banker in 2023?)

- '22년 중앙은행은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금리인상을 시행. 이는 통계자료에 기초했기 때문에 정당성이 담보. 하지만 '23년에는 미국, 유로존, 영국 등의 물가상승률 차이가 있으며, 기저효과로 인해 인플레이션 판단에 어려움이 존재
-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인상을 충분히 시행했다고 볼 수 있지만, 잠재적인 문제는 물가상승률의 경직성과 목표치 이상의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해도 금리인상 부담이 높다는 점. 이에 중앙은행들은 경제지표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을 수행할 필요

■ 연준, 예상보다 빨리 양적긴축 종료를 단행할 소지 - Reuters

(Fed's balance sheet drawdown could sunset next year)

- 연준은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의 일환으로 양적긴축을 시행. 최근 시장에서는 양적긴축에 따른 은행 유동성 감소, 국채시장 기능 저하 등을 이유로 예상보다 빠른 내년 2/4~4/4분기에 양적긴축이 종료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
- 은행 유동성 부족은 단기금리를 불안정하게 하고, 연준의 익일물 금리에 대한 통제력을 위협하는 상황을 유발. '19년 9월 사례는 양적긴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연준이 유동성 공급 재개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

■ 미국 정부,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예산 축소가 필수적 - WSJ

(We Aren't Ready for a Financial Crisis)

- 미국의 금융위기는 10년 주기로 발생('09년, '20년)했으나 다음 위기는 새로운 전쟁, 자산시장의 거품 붕괴,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등으로 발생 시점이 더 빨라질 우려
- 미국은 국가부채(31조달러), 연준의 대차대조표(8.6조달러) 규모를 고려할 때 금융위기 재발 시 성공적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평가. 연준은 점진적 양적긴축을 선호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재발 시 대차대조표는 재차 확대될 가능성 농후
- 국가부채 증가는 장기적으로 막대한 이자부담을 초래. 연준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지 않고 대차대조표 및 자금공급을 무한히 확대하기 어렵다는 점은 금융위기 직면 가능성을 암시. 이에 따른 경제불황, 초인플레이션 등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 지출을 줄여 부채를 낮추고 연준 대차대조표를 신속하게 축소하는 것이 해법

■ 미국의 채권가격 하락, 은행의 유동성 부족을 초래할 우려 - Financial Times

(US banks: mind the \$690bn bond valuation gap)

- 미국 대형은행들은 팬데믹 기간 채권투자를 확대. 채권 보유규모는 5.5조달러로 팬데믹 이전 대비 44% 증가. 그러나 금리상승으로 채권가치가 감소하면서 이와 관련된 미실현 손실은 꾸준히 증가하여 3/4분기에만 69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
- 이는 상당수 은행들이 적정자본비율 유지를 위한 매도가능 채권 축소 및 만기보유 채권 확대 등에 나섰기 때문(당국은 은행의 자기자본 계산에서 만기보유로 분류한 채권에 대해서는 시장가치 변화를 미반영). 다만 내년 예기치 못한 유동성 부족 상황이 발생하여 채권매도에 나서도 원하는 만큼의 유동성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

■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긴축기조 전환 판단은 시기상조 - Financial Times

(The BoJ flinches, but only a little)

- 일본은행의 수익률곡선제어정책(YCC) 조정을 통화정책 정상화의 시작점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 이는 YCC가 지속 불가능한 상황에 근접했다는 가정에 기초
- 하지만 ① 연준의 금리인상 감속, 유가 하락 등으로 엔화 약세 압력은 약화되었으며 ② 긴축기조로 선회하기에는 기저 인플레이션이 낮고 성장이 불안.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YCC 조정 필요성은 상당히 줄어든 상태
- 한편 일본은행의 국채매입 확대는 YCC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 금번 정책변화는 내년 총재 교체를 앞두고 후임자의 정책부담 완화 의도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 불가

■ 세계 경제, 중국의 영향력 확대 시도로 지정학적 요소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 - 블룸버그

(The Era of Geoeconomics Has Arri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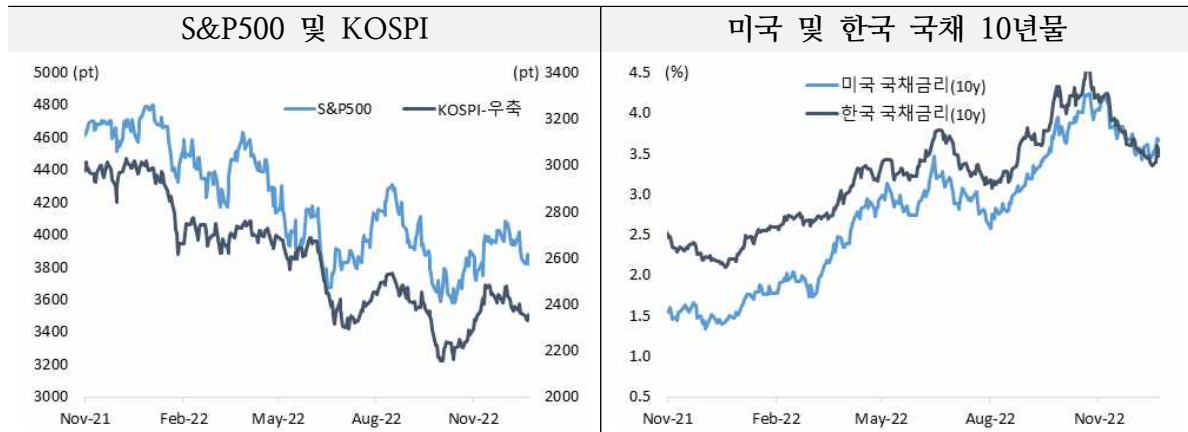
■ 미국 VIX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유지, 사전적인 주식 매도 등이 원인 - 블룸버그

(Wall Street Searching for Clues Behind the VIX's Very Weird Year)

■ 유럽 각국의 에너지 비용 지원 정책, ECB의 긴축 강화를 초래 소지 - Financial Times

(The ECB's three Ts are key to avoiding a new euro crisis)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